

고양환경운동연합

제25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1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실



환경운동연합 강령

환경은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 또한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대기의 온전한 상태를 보전하여 바다, 강, 산에서 생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계속 서식하길 바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고 있다. 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산림 파괴 그리고 방사능의 공포 등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환경위기의 최대 원인은 자연의 상태를 무시한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과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동 속에 있다. 그러나 성장정책의 소산인 국민 일반의 소비적 생활 태도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 특히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특별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사회 건설이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를 굳게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부의 편중과 도시 과밀화에 반대하여, 부의 사회적 재분배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을 전 사회 구성원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의 일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이해와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 쌀과 농업을 지켜 국토 환경보전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유해 독성물질의 발생이 최대한 억제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산 단계로부터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사치품의 생산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골프장, 간척사업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에 반대하며,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핵개발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군비 감축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운동의 주체인 피해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조직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1. 우리는 사회평등과 민족 통일의 실현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 환경문제의 주된 책임 당사자인 선진국이 환경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재정 부담에 성실히 나서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고양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다. 고봉산의 어머니 품속과 같은 산세와 덕양산의 기개가 어우러지며 북한산의 정기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핏줄과 같은 창릉천과 공릉천의 맑은 물은 고양시민의 가슴 속에 생명력으로 살아 넘치고 있다. 송포와 탄현의 기름진 땅에서는 온갖 곡식이 넘쳐 생산되고 있으며 서삼릉과 서오릉 등 조선 왕조의 역사 유산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고양을 지키고 사랑하며 이 땅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 환경과 삶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우리 고양은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신도시의 개발로 한강벌의 너른 들이 아파트에 잠식되었고 엄청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예로부터 간직 해왔던 천혜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게 되었다. 이는 불과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로 고양의 숲은 파헤쳐졌고 맑았던 하천은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으며 대기 중에는 유해 독소가 떠다니게 되었다.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스스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과 생존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게 된 것은 급속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반 환경적 정책 때문이다. 근시안적 행정으로 개발만을 일삼는 행정가와 우리 시민들 개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은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개발은 당장은 기업과 고양시에 이익을 가져다줄지 모른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도시를 영원하며 고양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 끝내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가 생길 때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고양시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 없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무의식, 무소신적 행태는 건강한 시민들의 생활 습관마저 무절제한 소비 위주로 흐르게 만들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아파트 문화는 소비문화의 정체성을 가져옴으로써 엄청난 음식 쓰레기를 양산하고 젖은 쓰레기를 오일로 태워야 하는 반 환경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고양시 곳곳에서 무분별한 자연파괴 행위에 분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고양시 각처에서 활동해 오던 여러 시민들이 함께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한 깃발 아래로 모이게 되었다. 이렇듯 한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각 지역의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운동을 벌임으로써 고양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 운동으로 환경 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고양지역 내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고양시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구 문명의 소산인 인간 이기주의의 틀을 깨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의 질서를 되찾고, 자연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이다. 그러나 초록빛 지구의 색깔이 바래질 때 지구만이 아닌 온 우주마저도 혼탁한 궤멸의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인간은 사고하고 창조하는 자연물로서 우주의 미래까지도 걱정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파괴, 오염된 이 땅에서 온몸으로 환경운동을 일구었던 지난날의 노력이 오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될 수 있었음을 자부하면서 앞으로 고양시 환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단기 4331년 (1998) 6월 13일

목 차

환경운동연합 비전	7
총회식순	8
연혁보고	9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	12
전차 회의록	18
2022 활동일지	19
2022 사업보고	22
2022 결산보고	26
2022 사업회계감사보고	29
정관개정안	30
임원선출 및 인준안	31
2023 사업계획안	32
2023 예산안	34
행사 사진	36
언론보도 및 성명서	42
2022 주요활동	51

환경운동연합 비전

핵심 가치

생명 평화 생태 참여

목표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 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

New KFEM 전략

아시아와 환경운동을 함께한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앞장선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한다.
생태순환 경제사회를 구축한다.
국가를 녹색으로 개혁한다.
생태적 삶과 지역자치를 실현한다.
세대와 공간을 넘어 소통한다.

핵심 구호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총회식순

■ 총회 전 행사

- 사회자 인사 : 김경희 산황동용뿔느티나무시민모임 팀장
- 참석자 및 임원 소개
- 인사말 : 조정 공동의장
- 축 사 : 노승영회원
- 추모 및 감사장 전달 : 고 유재덕 고문
- 시상식 : 안희철 외 6명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서기 지명

◆ 전차 회의록 보고

◆ 안건 상정

◆ 안건 처리

1. 2022 사업보고 승인의 건
2. 2022 결산보고 승인의 건
3. 2022 감사보고서(사업·회계) 승인의 건 / 안희철 감사
4. 정관개정안
5. 운영위원 선임 및 인준
6. 2023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7. 2023 예산안 승인의 건
8. 기타 안건

◆ 폐회

연혁보고

- ◎ 1994년
 - 1월 : 고양환경시민연합 준비모임 결성
 - 4월 30일 : 고양환경시민연합 발기인 대회
[창립준비위원장 - 이건현(유도회회장) / 총무-신기식(목사) / 간사 - 김홍익]
 - 9월 10일 : 고양환경시민연합 창립총회 및 사무실 개소(덕양구 주교동 603-1 태평빌딩2층)
회장-허준(고양시의회 의장) / 사무국장-김홍익]
- ◎ 1995년
 - 사무실 이전(덕양구 토당동 112-3), 사무국장 최태봉 선임
- ◎ 1997년
 - 9월 : <고양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변경 결의(임시총회 개최)
- ◎ 1998년
 - 6월 13일 : 고양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공동대표 이항규 박사)
[공동대표-이항규 박사(상임), 유재덕(목사), 박종후(스님) / 사무국장 - 김홍익]
(※사무실 이전 : 일산구 풍동 154-7 성원빌딩)
 - 10월 29일 : 제 4차 집행위원회(조직개편 결의)
[고문 - 유재덕, 박종후 / 상임공동대표 - 신기식 / 사무국장 - 강지형]
- ◎ 1999년
 - 3월 : 강지형 사무국장 사임, 사무국장 직무대행 김홍익
- ◎ 2000년
 - 4월 25일 : 제2차 정기총회
[고문 - 신기식(목사) / 상임공동대표 - 정성진(목사)] 김홍익 사무국장 사임
 - 11월 9일: 임시총회 개최
[정성진 상임대표 사임(고문으로 추대) / 공동대표 - 고영석(교수), 김성호(법사)]
 - 11월 15일 : 사무실 이전(일산구 일산2동 1560-3 한진프라자 402호)
- ◎ 2001년
 - 6월 2일 : 제3차 정기총회
[공동의장 - 고영석 / 김성호]
- ◎ 2002년
 - 2월 22일 : 제4차 정기총회
[공동의장 - 정성진 / 이치범 / 김성호]
- ◎ 2003년
 - 2월 8일 : 제5차 정기총회
[고문 - 김지하, 고영석, 두봉주교, 이건현 / 공동의장 - 정성진, 김성호, 조현주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사무국장 - 최태봉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04년
 - 1월 31일 : 제6차 정기총회
[공동의장 - 정성진, 조현주 / 집행위원장 박평수]
- ◎ 2005년
 - 1월29일 : 제7차 정기총회
[고문 - 고영석, 김지하, 이건현, 홍갑표 / 상임의장 - 조현주,
의장 - 정성진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06년
 - 1월 21일 : 제8차 정기총회
[고문 - 고영석, 김지하, 이건현, 이치범, 홍갑표 / 공동의장 - 정숙현(교무),
정성진(목사)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경석]
- ◎ 2007년
 - 1월 20일 : 제9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 공동의장 - 숙타운 정숙현, 정성진(목사)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08년
 - 1월 19일 : 제10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 공동의장 - 최성양(원불교교무),
권혁동(신부) / 감사 - 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황유성]
- ◎ 2009년
 - 1월 31일 : 제11차 정기총회
[고문-강태희, 이치범, 정성진/공동의장 - 송기섭(목사), 권혁동(신부)
/ 감사-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0년
 - 1월 30일 : 제12차 정기총회
[고문-강태희, 이치범, 정성진/공동의장-송기섭(목사), 권혁동(신부)
/ 감사-김병수, 김홍익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1년
 - 1월 22일: 제13차 정기총회
[고문-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의장 - 안경신
/ 감사-박수택, 윤정문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2년
 - 1월 28일 : 제14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 의장-안경신
/ 감사-박수택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3년
 - 1월 26일 : 제15차 정기총회
[고문 - 강태희, 이치범, 정성진 / 의장 - 안경신
/ 감사 - 박수택 / 집행위원장 - 박평수]
- ◎ 2014년
 - 1월 25일 : 제16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치범 / 공동의장 - 박평수, 이철국, 조정
/ 감사 - 유시훈 / 집행위원장 - 황유성]

◎ 2015년

◦ 1월 24일 : 제17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치범, / 공동의장 - 이철국, 조정
/ 감사 - 유시훈 / 운영위원장 - 황유성]

◎ 2016년

◦ 1월 30일 : 제18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치범, 조정 / 의장 - 황유성
/ 감사 - 김경숙 / 운영위원장 - 이병주]

◎ 2017년

◦ 2월 5일 : 제19차 정기총회

[고문 - 안경신, 이철국, 유재덕 / 공동의장 - 조정, 황유성
/ 감사 - 김명원 / 운영위원장 - 이병주]

◎ 2018년

◦ 2월 2일 : 제20차 정기총회

[고문 - 유재덕, 이철국, 황유성 / 의장 - 조정
/ 감사 - 박영신, 김명원 / 운영위원장 - 이경현]

◎ 2019년

◦ 1월 24일 : 제21차 정기총회

[고문 - 유재덕 / 의장 - 조정
/ 감사 - 박영신, 김명원 / 운영위원장 - 이경현]

◎ 2020년

◦ 1월 31일 : 제22차 정기총회

[고문 - 유재덕, 황유성 / 의장 - 조정, 이재후, 정상호
/ 감사 - 안희철, 윤영학 / 운영위원장 - 정상호]

◎ 2021년

◦ 2월 16일 : 제23차 정기총회

[고문 - 유재덕, 황유성 / 의장 - 조정
/ 감사 - 안희철 / 운영위원장 - 박찬호]

◎ 2022년

◦ 2월 5일 : 제24차 정기총회

[고문 - 유재덕, 황유성 / 의장 - 조정, 윤영학
/ 감사 - 안희철 / 운영위원장 - 윤영학]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

개정일 : 2016년 01월 30일

개정일 : 2017년 02월 05일

개정일 : 2018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9년 01월 24일

개정일 : 2020년 01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고양환경운동연합(약칭 ‘고양환경연합’, 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Goyang (약칭 ‘KFEM Goyang’)”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에 의해 고양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설립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고양시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본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환경운동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터로 만들어 감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고양시 관내 환경, 생태의 보존에 주력한다.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감시 및 정책제안운동
2.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생활환경실천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3. 환경연합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5.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최근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약정 연회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개인회원으로 한다. 단, 타지역 이관 회원은 이관 즉시 정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는 동의하고 후원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활동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당의 당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회원은 회비 납부 및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상벌]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가.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을 방해할 때
 - 나. 회비 납부 의무를 태만히 할 때
 - 다. 정관 또는 모든 규정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라. 징계를 받은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 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3. 모든 임원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의장]

본 회를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 [운영위원]

1.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집행하며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정당의 당직(상근여부와 무관) 및 선출직 공직을 갖지 않은 자에 한한다.

제14조 [감사]

본 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15조 [고문]

본 회의 활동을 지지·지원하고 활동을 조언하기 위해 지역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한다.

제16조 [지도·자문위원]

본 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및 부설기구]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및 부설 기구들을 둘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

1. 본 회의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사무처리와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본 회의 소식지 발행 및 홍보를 위해 편집부를 설치하고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사무국이 전체사업과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 본 회의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된다.
2. 총회는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 회원 1/10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의 경우 문자, 이메일, 서면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지체 없이 임원 및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의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준비위원회]

1.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총회 시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총회준비위원회의 명의로 공지하여야 한다.
3. 총회준비위원장은 정당의 당원 가입이나 당원에 준하는 직책을 갖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총회준비위원회는 시작과 동시에 당해 운영위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하여 진행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개정
2. 사업 계획 및 예결산안의 승인
3. 공동의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의 인준
4.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 의결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이나 기타 중요한 안건 의결

제25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구성]

1. 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며 의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 [기능]

1. 본 회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심의 및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3. 고문, 지도, 자문, 정책, 교육 위원 등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 부서의 설치 및 해체
6. 상·벌 관계의 심의 및 결정
7. 실무자의 임명 및 해임 승인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 처리

제29조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연 12회의 정기회의(총준위포함)를 가지며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안건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임통지의 경우 포괄위임이 아닌, 안건에 따라 한정위임을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진행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회비]

회비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회계투명성]

본 회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 및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34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중앙 정관이 상충할 때에는 본 정관이 우선한다.

24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22년 2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 동녘교회

■ 총회전 행사

- 사회자 인사 : 최미선 공동의장
- 참석자 및 임원 소개 : 조정의장, 최미선 공동의장, 운영학 운영위원장, 유재덕 고문, 김경환 목사, 문희영 운영위원
- 인사말 : 운영학 운영위원장
- 축 사 : 유재덕 고문
- 시상식 : 총 10명 농산물꾸러미 증정

(환경 민원 시민 5명, 문성준 운영위원, 장혜숙 회원, 최미선 공동의장, 김경환 목사, 유재덕 고문)

■ 성원 보고 : 응답자 36명 중 참석 3명, 위임 29명, 불참 4명으로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서기 지명 : 서기 문희영

■ 안건 처리 : 조정 의장

1. 2021 사업보고 승인의 건 (p25~p29)
2. 2021 결산보고 승인의 건 (p30~p32)
3. 2021 감사보고서(사업·회계) 승인의 건 / 안희철 감사 (p33)
4. 정관개정안 : 고양환경운동연합 법적지위 변경에 따른 정관 신설 (p34)
공익단체(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변경됨.
5. 운영위원 선임 및 인준 (p35)
6. 2022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p36~p37)
 - 질의: 문성준 운영위원(방송 영상제작 예산 문의),
 - 답변: 조정 의장(파타고니아 후원금 일부 + 교육사업비 일부)
7. 2022 예산안 승인의 건 (p38~39)
 - 2022수입예산 합계금액 오류 지적에 따라 정정 예정(52,020,000원→50,020,000원)

■ 폐회

2022년 활동일지

- 1월** 3일 기독교대책위 목사님들과 함께한 산황산 보전을 위한 기도회
/ CBS방송취재, 고양신문 기사
20일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21일 스프링힐스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 2월** 5일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시상식 및 안건처리 등
18일 스프링힐스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 3월** 3일 경기환경련 대표자 사무국처장 연석회의
5일 고양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워크샵/ 장소:동넙교회
9일 산황산 둘레길조성을 위한 답사
9일 제보 현장 조사/ 대화동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와 성저공원 나무훼손
19일 제보 현장 조사/ 성석천 오염
26일 운영위원 회의
- 4월** 2일 산황산 맨발걷기 사전답사
22일 스프링힐스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23일 회원배가운동 및 환경캠페인/ 장소:마두역 광장
30일 운영위원 회의
- 5월** 2~3일 경기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샵/ 문희영 간사
6일 환경그림책읽기 및 독후활동/ 최은영 운영위원
14일 행주강변걷기
15일 계명산 제보현장 방문
18일 고양시장후보 토론회 질의서 및 제안서 전달
20일 스프링힐스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21일 환경그림책읽기 및 독후활동
21일 사계절탐조 사전교육/ 강사:활동가 사이/ 장소:고양관광정보센터
27일 서정초등학교 특강/ 조정 공동의장

28일 사계절탐조(봄)
28일 운영위원 회의
29일 시장 예비후보사무실 방문, 정책제안 논의

6월 11일 임시 운영위원 회의
12일 식사동 견달천 제보현장 방문
17일 스프링힐스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18일 환경그림책읽기 및 독후활동
18일 산황산 맨발걷기 및 느티나무 정화작업
23일 산황산을 살리기위한 기도회 및 문화제/ 장소:일산은혜교회
25일 운영위원 회의
28일 산황산지킴이 텐트 강제철거당함
28일 비상임시회의/ 산황산지킴이 텐트 강제철거건 논의/ zoom

7월 1일 기자회견/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불복종 텐트 강제 철거 규탄 및
신임시장에게 제안하는 산황산 보전안
1일 환경그림책읽기 및 독후활동
21일 제보현장방문/ 창릉천 쓰레기 민원
22일 스프링힐스 지하수 모니터링
30일 운영위원 회의
30일 사계절 탐조(여름 야간)

8월 2일 철거용품 회수(텐트, 탁자 등)
5일 환경그림책읽기 및 독후활동
8일 경기환경연 회의(zoom)
9일 산황동느티나무 취재(한겨레21) 동행
11일 철거용품 정리(현수막정리, 대형폐기물처리 등)
13일 산황산 맨발걷기
17일 특강 고양시도 꾸리찌바가 될 수 있을까?/ 박용남소장
19일 스프링힐스 지하수 모니터링
27일 환경연 대표자 회의/ 운영학공동의장 참석/ 대전
28일 운영위원 회의

- 9월** 1일 환경그림책읽기 및 독후활동
 7일 후원하기 페이스북 동시 게재
 14일 지축중학교 강의/ 문성준 운영위원
 16일 회계 교육(zoom) 참석/ 문희영간사
 16일 스프링힐스 지하수 모니터링
 17일 환경그림책읽기 및 독후활동
 23일 시민특강 기후위기와 우리의 삶/ 최병성 목사
 24일 전국 기후정의행진 참가
 24일 운영위원 회의

- 10월** 1일 조정의장 노작문학상 수상식 참석
 8일 사계절 탐조(가을)
 11일 고양시장 면담요청 공문 발송
 21일 스프링힐스 지하수 모니터링
 23일 운영위원 회의(zoom)
 28일 전국대표자회의 연기/운영학공동의장, 개최지 변경에 따른 문제제기로 불참선언
 29일 제4회 고천제/ 산황동 느티나무 앞

- 11월** 5일 사무실 이사 사전 정리
 9일 사무실 이사/ 주교동->마두동
 18일 스프링힐스 지하수 모니터링
 18일 야호마을사람들과 산황산에 호두나무 심기
 19일 고양시 공정무역 포트나잇 참석, 부스 활동지원
 26일 제25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1차)
 29일 주엽초 석면모니터링 사전설명회 참여

- 12월** 3일 제25차 총회준비위원회(2차)
 7일 제25차 총회준비위원회(3차)
 9일 사무실이전 집들이
 10일 2022 제2차 임시전국대표자회의 참석(운영학공동의장)
 14일 제25차 총회준비위원회(4차)
 17일 사계절 탐조(겨울)
 21일 제25차 총회준비위원회(5차)
 23일 스프링힐스 지하수 모니터링
 28일 제25차 총회준비위원회(6차)

2022년 사업보고

■ 정책사업

1. 산황산 보전

- ① 산황산 지킴이 텐트 유지 / 연대 단체들, 시민들 릴레이 참여(2월~6월28일)
- ② 산황산 살리기 기도회
 - 기독교대책위 목사님들과 함께한 산황산 보전을 위한 기도회 (2022.1)
 - / CBS방송 및 고양신문 보도
 - 고양시 산황산을 살리기 위한 목요기도회 및 시민문화제 “숲은 우리의 멜로디”(2022.6)
- ③ 고양시장 후보 토론회에 “환경 감질을 멈추는 고양시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2022.5)/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및 산황산 자연숲 보전 제안/ 정의당 김혜련 후보측만 답신/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는 대변인을 통해 당선 후 검토해서 해결하겠다는 유선 답신/ 민주당 이재준 후보는 미답변.
- ④ 산황산 지킴이 텐트 강제철거 당함(2022.6)
- ⑤ 산황산 지킴이 텐트 강제철거 규탄 및 신임시장에게 제안하는 산황산 보전안 기자회견 (2022.7)
- ⑥ 산황산 느티나무 한겨레21 취재, 보도(2022.8)
 - / 골프장 때문에? ‘우영우 팽나무’ 닳은 용뿔나무
- ⑦ 고천제 / 느티나무 보전 및 산황동 문화 잇기 행사 (2022.10)/ 고양신문 보도
- ⑧ 산황산 식목 - 야호마을 주민들과 호두나무 심기(2022.11)
 - 운영위원들과 꽃씨 뿌리기(2022.3)
- ⑨ 골프장 지하수 사용 검침 내용 모니터링
 - / 2018년 10월부터 진행했으며 2022년에도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꾸준히 실행

2. 생태컨텐츠 제작

- ① 산황동 및 산황산 문화생태서 출간예정(2023년1월말)/ 원고수집중
- ② 산황산 홍보 영상제작중(2023년1월 중순 완성 예정)/ 내용-산황산을 배경으로 한 유지선의 퍼포먼스 및 자료화면/ 제작자-문성준PD

3. 도심녹지축 정상화

- ① 고양시장 후보 토론회에 “환경 감질을 멈추는 고양시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2022.5)/ 녹지공익성결정시민속의단 구축, 일산동구 도심녹지축 정상화, 경의선 프로젝트 곡산역에 산황동 농업생태 지역 포함
- ② 호수공원-문화광장, 문화광장-정발산간 공중보행로 폐지 및 도심 녹지 훼손 상황 시민 홍보 및 서명전

■ 교육사업

1. 시민특강 및 외부요청 강의

- ① 시민특강(2회)
 - 고양시도 꾸리찌바가 될 수 있을까?(2022.8)/ 강사:박용남 소장
 - 기후위기와 우리의 삶(2022.9)/ 강사:최병성 목사
- ② 외부요청 강의
 - 서정초등학교(2022.5)/ 고양시의 환경을 위해 어린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정 공동의장
 - 지축중학교(2022.9)/ 고양환경운동연합소개 및 기후위기, 환경문제/ 문성준 운영위원
 - 지축중학교(2022.9)/ 업사이클링/ 최은영 운영위원

2. 독서활동

- ① 환경책읽기 및 독후활동(매월 2회)
 - 최은영 위원의 지도하에 환경 관련 그림책을 읽고 독후에는 업사이클링 활동/
식물심기, 깨진 유리조각으로 목걸이 만들기 등
- ② 리딩클럽
 - 수요독서모임/ 길고 긴 나무의 삶, 기후 심리학 등/ 매주 수요일
 - 운영위원 독서모임/ 한국NOG의 사상과 실천

3. 사계절 탐조

- ① 사전 교육/ 산황산과 개발 그리고 탐조/ 강사 이박광문(2022.5)
- ② 사계절 현장 조류 관찰/ 산황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를 계절에 따라 관찰
 - 봄 탐조(2022.5)
 - 여름 야간 탐조(2022.7)
 - 가을 탐조(2022.10)
 - 겨울 탐조(2022.12)

■ 회원 사업

- ① 행주강변 걷기(2022.5)
- ② 산황산 맨발 걷기(매월 둘째주 토요일)
- ③ 매실따기 체험(2022.6)
- ④ 산황산 출사(2022.6)
- ⑤ 환경의 날 이벤트 - SNS 인증 챌린지(2022.5)

결 과	<p>1. 오랜기간의 투쟁과 많은 사람들의 영원에도 불구하고 산황산 골프장 증설문제는 고양시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직권취소로 귀결되지 못한 채 급기야 산황산 지킴이 텐트까지 강제 철거를 당하였지만, 산황산을 골프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고양환경운동연합의 노력은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p> <p>2. 코로나시국의 한계속에서 다양한 교육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지만, 회원님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

■ 대외 활동

1. 연대 활동 및 후원

- ① 전국 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연 대표자 사무국처장 연석회의 참석(2022.3)
 - 경기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샵 참석(2022.5)
 - 환경연 대표자 회의/ 운영학공동의장 참석/ 대전(2022.8)
 - 대구환경연 연대/ 카메라 자금 후원(2022.8)
 - 경기환경연 회의 참석(2022.8)
 - 924기후정의행진 참가(2022.9)
 - 환경운동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제2차 공론장(2022.11) 참석
- ② 외부단체
 - 초록별연구소 연대/ 생태보전 현수막 자금 후원(2022.5)
 - 고양시 공정무역 포트나잇 참석, 부스 활동지원(2022.11)

2. 석면모니터링

- ① 주엽초등학교 모니터링(2022.11 사전설명회/ 2023.1모니터링예정)

■ 기타 활동

1. 산황동 조류 조사 실시/ 동계(2022.2)
2. 민원인 제보건 / 계명산 및 성서공원 산림훼손, 성석천 및 창릉천, 견달천, 설문동의 하천오염, 가좌동 유해물질 등 조사, 신고.

■ 2022년 조류조사

○ 통계(2022.2)

- 대상: 산황산 야생조류 법정보호종 및 조류상 조사.
- 조사자: 이박광문(디엑스이 코리아)

이날 발견된 야생조류 법정보호종은 53개체다.

<큰기러기(멸종위기 2급) 52개체>

작은 논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도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산황산이 배후산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산황산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면 적당한 크기의 배후산림이 사라져 큰기러기들이 그 인근의 논까지도 서식처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는 골프장으로 개발된 김포공항습지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날개가 있어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서식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다.

서식처의 감소는 개체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새매(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323-4호) 1개체>

마찬가지로 교란이 많은 작은 논이더라도 배후산림이 있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게 된다.

<산황산 인근 조류상>

(총 25종)

큰기러기, 쇠기러기, 쇠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멧비둘기, 새매, 왜가리, 말뚝가리, 대백로, 때까치,

까치, 큰부리까마귀, 노랑지빠귀, 딱새, 박새, 굴뚝새, 쇠박새, 진박새, 오목눈이, 상모술새,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참새, 노랑턱멧새, 족새.

<그밖에 인근 논(역 부근)>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종다리, 백할미새, 방울새,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논명아리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 법정보호종이 아니더라도 개발로 서식처의 감소가 이어지는 만큼 날개가 있어서 다른 서식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줄어든다.

김포공항습지에서도 배후산림이 사라지자 인위적 환경에 적응하는 종으로 조성이 바뀌었다.

그 땅의 주인인 비인간 동물에게도 개발을 허락 받았는가? 권리 침해의 근거가 그들이 내몰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인가? 비인간동물을 어디론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서식지에서 내모는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22년 결산보고

1. 수입결산 (주계좌)

(단위 : 원)

항목		2022 수입결산	비고
회비		30,627,490	
후원금		1,088,000	
기타수입	지원사업	469,540	중앙환경운동연합 (924기후정의행진)
	수익사업	0	
	기타수입(이자 등)	263,443	
	착오입금	49,500	
재무	임차보증금	20,000,000	유림빌딩 반환
수입합계		52,497,973	
전년도 이월금		33,566,411	
총계		86,064,384	

2.지출결산 (주계좌)

비목	항목	2022지출	비고
인건비	급여	11,485,160	
	퇴직금 총당금	478,611	2022.10월~
	상여금	0	
	4대보험	694,430	
	복리후생비	0	
	시간제근로임금	0	
	소계	12,658,201	
운영비	임대 및 관리비	3,449,000	244,400->12월부터760,600
	수도, 전기료	62,800	
	우편,통신료	498,660	
	소모품비(100만원이하)	863,297	
	회계 기장비	792,000	
	교통비	30,100	
	지급수수료	25,760	
	비품구입비	0	
	도서인쇄비	214,100	
	세금	470,010	
	착오입금 반환	0	
	감가상각비	3,674,000	냉난방기설치
	기타운영비	2,870,612	이사관련(북비,이삿짐센터 등)
	소계	12,950,339	
사업비	환경교육사업비	1,083,110	4계절탐조,특강,환경책읽기 등
	국토생태사업비	906,160	고천제,토론회,맨발걷기 등
	조직 및 정책사업비	2,757,800	워크숍/운영위,총회/경조사비/정책 관련활동/내,외부연대/분담금 등
	회원사업비	645,450	단체문자,회원모집캠페인 등
	MRM사용료	355,850	회원관리프로그램
	CMS이용료	220,000	금융결제원 수수료
	생활환경사업비	0	
	홍보사업비	0	
	탈핵에너지기후변화사업비	434,340	924기후정의행진
	전국분담금(중앙)	393,120	
	광역분담금(경기)	780,000	
	소계	7,575,830	
재무	임차보증금	30,000,000	새사무실 이전
지출합계		63,184,370	
차기 이월금		22,880,014	
총계		86,064,384	

3. 2022 총결산 (주계좌)

2022수입합계	52,497,973	2022지출합계	63,184,370
전년도 이월금	33,566,411	2022 차기이월금	22,880,014
2022수입총계	86,064,384		

4. 2022.12월말 현재 통장잔액

예금종류	은행	용도	계좌번호	잔액
보통	농협	주계좌	157-01-159315	22,880,014
보통	농협	환경지킴이	157-01-166130	1,185,348
보통	농협	파타고니아	301-0065-4018-61	11,977,891
보통	농협	범대위	157-01-166171	5,415,674
보통	농협	한 평 사기	157-01-166126	5,891,781
합계				47,350,708

● 임차보증금

임대인	기간	임차보증금	비고
고양향교	2018.1.1.~2022.11.8	20,000,000	반환
백샘상가조합	2022.11.9.~	30,000,000	지급

* 2022.11.8. 까지 월 임차 및 관리비 244,400원

2022.11.9. 부터 월 임차 및 관리비 760,000원(임차료 세금포함660,000원/관리비100,000원)

2022년 사업 · 회계 감사보고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고양환경운동연합의 2022년 단체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목적: 2022년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보고를 위한 정기 감사

2. 감사범위: 고양환경운동연합 2022년 회계 및 행정 업무와 사업수행 등 운영전반

3. 감사방법

1) 실시기간: 2023년 1월 5일 ~ 2023년 1월 7일

2) 감사방법:

- ① 서류열람(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산서)
- ② 주계좌 통장 및 입출금 내역 확인
- ③ 환경지킴이 및 파타고니아, 범대위, 한평사기 잔액확인

4. 감사결과

- 1)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단체의 2022년도 사업수행 내용과 실적을 정당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은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함.
- 2) 세입세출결산서는 단체의 세입세출 내역을 정당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이월금 잔액이 주계좌 통장의 잔액과 일치함을 확인함.
- 3) 사무국의 행정업무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은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음.

2023년 1월 9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감사 안 희 철



고양환경운동연합 귀중

정관 개정(안)

1. 개정 주요 내용

- 정당제한 항목 일부 삭제 등

2. 정관 신규 대조표

개정 항목	현안	개정안
[운영위원] 제13조 3항	정당의 당직(상근여부와 무관) 및 선출직 공직을 갖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삭제
[총회] 제21조 2항	총회는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 회원 1/10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재적회원->정회원
[조직] 제11조 2항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국장->총준위원장

3. 개정 이유

- 정당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비합리적임.
또한, 보다 많은 능력있는 분들의 운영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임원 및 운영위원의 구성 인준(안)

구 분	이 름	소 속
공동의장	운영학	동넉평화센터
	조 정	시인
고문	황유성	전 공동의장
자문위원	김준봉	우석대 건축과 교수
	김경희	고양사회창안센터 이사
	김 석	소나무보호협회 (전 중등교감)
	김해련	고양시의원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장석환	대진대 토목과 교수
	최병성	초록별연구소 소장
산황동용뿔느티나무 시민모임 팀장	김경희	고양사회창안센터 이사
운영위원	김명수	학원 원장
	류시훈	전. (주)풍산 임원
	문석관	전. 고양어르신사랑센터 운영
	문성준	PD
	박남희	대학 강사
	이용임	시인. 프로그래머
	최은영	사람나무 및 더희망포럼 사무국장
감 사	안희철(회계)	박애원 기획실장
	류시훈(사업)	전. (주)풍산 임원

- ※ 가나다 순
- ※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 당연직 운영위원

2023년 사업계획(안)

1. 사업개요와 목표

■사업개요

- 1) 환경 및 생태계보존 위한 각종 조사, 감시 및 정책대안운동
- 2) 회원배가운동과 회원조직관리
- 3) 접근이 유연하고 행복한 환경운동 확장

■사업목표

- 1) 지역의 환경 모니터링 통해 문제점 인식하고 개선 및 발전적 방향 제시.
- 2) 회원배가 통해 시민단체로서의 자생력 키울 수 있는 능력 배양.
- 3) 환경인식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 할 기회 마련.

■ 주요사업

- 1) 고양시 환경 및 생태계 보전운동
 - 도심 숲을 알리는 회원사업과 시민활동을 펼친다.
(생태탐방, 도심숲 걷기, 학교연계활동, 지역연계활동)
- 2) 고양시의 현안 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현안대응에 활용한다.
- 3) 산황산 골프장증설 백지화를 위해 연대활동에 각 시민단체들과 함께한다.
 - 산황산 걷기, 산황산 정화활동, 거리홍보, 피켓팅, 골프장 지하수 모니터링
- 4) 회원배가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 5) 녹지훼손, 하천오염, 탄소발생사업 등을 감시한다.

사업	주제	목표	비고
정책사업	산황산보전 •산황산 도시관리계획 직권취소 쟁취 •산황산도로계획 변경 쟁취	•기후위기대응 도심녹지보전으로 기후위기시대의 회복탄력성 확보. •부정부패, 반시민, 반민주주의 대응 생태다양성, 주민생존권 착취 및 뇌물수수 고착하는 시정 불복종.	•시민 연대, 여론 환기 •느티나무지킴이 활동
	생태컨텐츠 제작	•산황동 및 산황산 문화생태서 출간 •산황산 영상제작	•파타고니아 코리아 후원
	도심녹지축	•호수공원-산황산 노선 녹지축 확보 •경의선 프로젝트의 녹지 컨텐츠	•곡산역 인근 도심슬로시티 제안 •도심 녹지축 걷기
교육사업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의 우선순위 인식 •자연생태의 신비 •기록 및 결과물 전시	어린이, 청소년 중 택
	토론회(2회)	•주요 정책 중심	
	시민강좌(2회)	•시민들에게 유익한 환경강좌 마련	
	책읽기	•도서구입	100권
		•환경그림책읽기와 제로웨이스트 병행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 걸음	환경그림책
	•운영위원 역량강화		
	•시민 인식 개선(비대면)	수요모임	
회원사업	행주강변 걷기	•회원들과 소통 공간 마련 •회원들과 자연유산 현장 공유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교류	
	산황동 고천제		
	회원의날		
	홈페이지	• 회원 교류와 단체 소식 전달	
	SNS	• 페이스북, 유튜브, BAND 적극적 활용	
	회원배가	•기업대상접촉 •지역단체들과의 연대 •운영위원 회원추천 개인목표설정	•회원협력
환경 캠페인	기후위기 대응	•도심녹지축홍보 •기후위기대응행동참여	•교육연계 •고양시연대 •정책제안
	자원 순환	•지구를 살리는 개인행동 환기	
	플라스틱 zero		
대외행동	•성명서 •기자회견	•현안 발생 및 환경 정책 관련 단체 입장 발표	
	연대 및 후원	•후원금 •연대 행동 •캠페인 동참	
	석면 모니터링	•요청 학교 대응	
	외부네트워크활동	•지역오피니언리더 모임	

2023년 예산

1. 수입예산

항목		수입	비고
회비		40,000,000	
후원금		2,000,000	
기타수입	지원사업	0	
	수익사업	0	
	기타수입(이자 등)	0	
	착오입금	0	
	이자 등 기타	100,000	
수입합계		42,100,000	
전년도 이월금		22,880,014	
총계		64,980,014	

2. 지출예산

비목	항목	지출	비고
인건비	급여	21,880,000	
	퇴직금 총당금	2,010,000	
	상여금	0	
	4대보험	4,810,000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복리후생비	0	
	시간제근로임금	0	
	소계	28,700,000	
운영비	임대 및 관리비	9,120,000	월760,000원
	수도, 전기료	600,000	
	우편,통신료	540,000	전화,인터넷,등기 등
	소모품비(100만원이하)	360,000	사무용품 등
	회계 기장비	790,000	월66,000원
	교통비	30,000	
	지급수수료	30,000	
	비품구입비	0	
	도서인쇄비	260,000	함께 사는 길 10부
	세금	500,000	원천징수, 법인세 등
	착오입금 반환	0	
	감가상각비	0	
	예비비	10,980,014	예비비 등
	소계	23,210,014	
사업비	환경교육사업비	6,700,000	환경지킴이,도서구입,강사양성 등
	국토생태사업비	2,720,000	느티나무지킴이활동,토론회 등
	조직 및 정책사업비	1,350,000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모임 등
	회원및모금사업비	460,000	회원배가 캠페인 등
	MRM사용료	710,000	회원관리프로그램
	CMS이용료	530,000	금융결제원 수수료
	생활환경사업비	0	
	미디어홍보사업비	0	
	탈핵에너지기후변화사업비	0	
	전국분담금(중앙)	600,000	
	광역분담금(경기)	0	
	소계	13,070,000	
지출합계		64,980,014	

2022년 행사 사진

2022년 1월



기독교대책위 목사님들과 함께한 산황산 보전을 위한 기도회



스프링힐스골프장 지하수 사용량 모니터링

2022년 2월



제24차 정기총회(ZOOM)



산황동 지킴이테트 릴레이 참여

2022년 3월



2022 운영위원 워크숍



산황산걷기 답사

2022년 4월



거리 서명전과 회원모집 캠페인



운영위원 회의

2022년 5월



제4회 행주강변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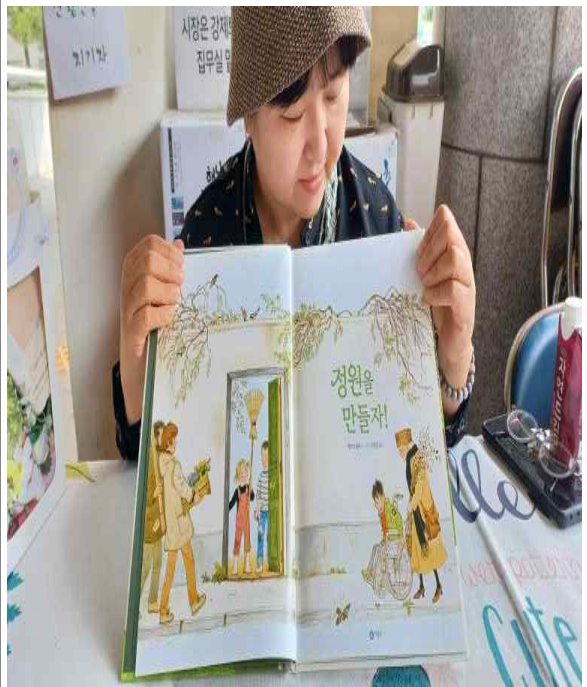


사계절 탐조(봄)

2022년 6월



산황산을 살리기 위한 기도회 및 문화제



환경그림책읽기

2022년 7월



[기자회견] 상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불복종행위 강제 철거 규탄 및 신임시장에게 제안하는 상황산 보전안



2022. 7. 30. 오후 8:37:50
고양시

사계절 탐조(여름 야간)

2022년 8월



[특강] 고양시도 꾸리찌바가 될 수 있을까?



22/8/27 오후 4:54
226 선화동
중구
대전광역시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참석

2022년 9월



[특강] 기후위기와 우리의 삶



924기후정의행진

2022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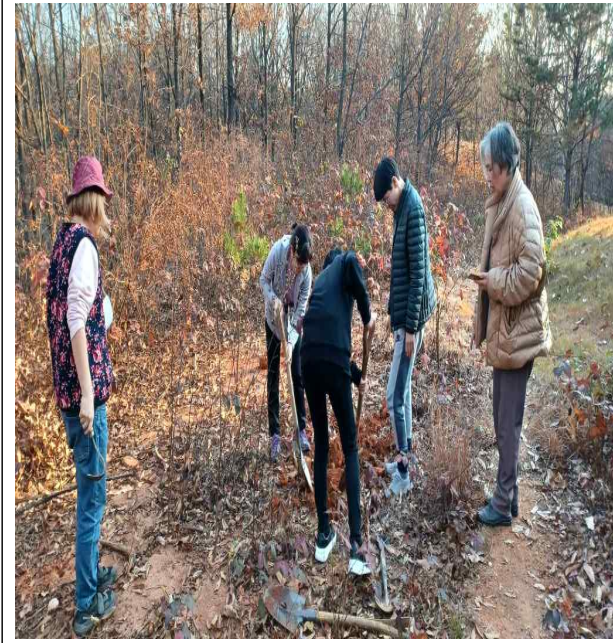


사계절 탐조(가을)



제4회 고천제

2022년 11월



산황산 호두나무 심기(with 야호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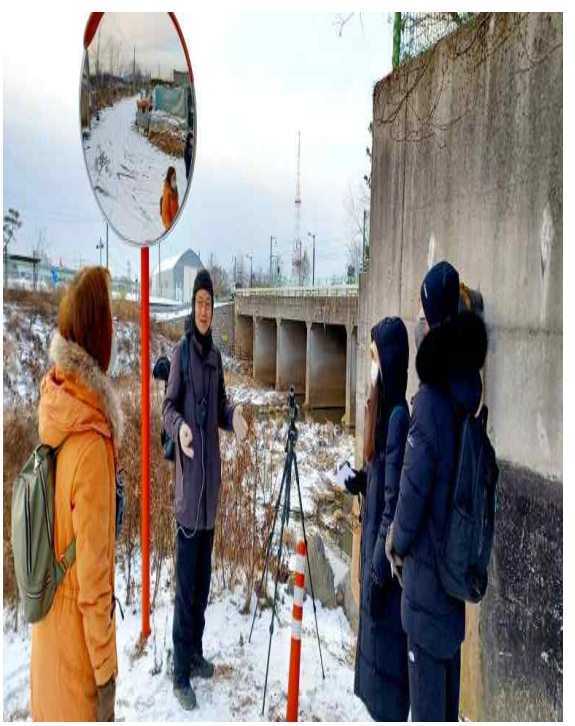


석면제거사업 모니터링

2022년 12월



마두동 시대를 여는 집들이



사계절 탐조(겨울)

언론보도 및 성명서

[고양시장 후보 토론회 질의서]

전현직 고양시장이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속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고양시장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는 선행 문구를 모르쇠하고 10년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만 보도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연숲 그린벨트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나 자동차도로가 없는 안전한 수돗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증설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골프장은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또한 행정지침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제1절>은 취소를 위한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 및 일반적인 재검토 기준을 보다 사려깊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도 9가지 취소 기준에 의해 재검토한 후, 그 중 공익성 하나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역점정책과의 연관성 검토에 의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산황산 보전이나 수돗물 안전보다 공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8년에 걸친 시민불복종 운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4년 이재준 시장 임기 동안도 시민들은 고양시의 고소로 전과자가 되고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면서 24시간 시민불복종텐트를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녹지정책과 연관성 역시 산황산 보전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정합성, 시민들의 요구, 기후위기대응, 생태다양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르쇠하는 것은 시장의 배임행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 후보들께 4년 전과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이 되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의 산소탱크로 산황산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까?

2022.5.18 고양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전달

[성명서] 산황산을 살리기 위한 시민불복종 텐트 강제 철거 규탄 및 신임시장에 제안하는 고양 시민과 그리스도인 성명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산황산을 살리기 위한 시민불복종 텐트> 강제 철거를 규탄한다. 그린 뉴딜, 녹색도시, 친환경생태도시, 나무권리선언 등은 이재준 전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던 말들이다. 심지어 지난 선거에서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임기 말 산황산을 골프장으로부터 지키려는 시민 불복종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고양시의 정수장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고양시 얼마 남지 않은 녹지들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아우성을 강제 진압한 것이다. 녹색 고양을 표방했던 시장이었기에 기대도 컸던 것일까.

뿐만 아니다. 시장 취임 이후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수차례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불복종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생겨난 몸 충돌을 기소하여 벌금형과 실형을 받게 함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였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 그 열망을 이어 시민들이 주인 되는 고양시를 기대하며 탄생한 민선시장이어서 기대가 컸던 것일까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때로는 생업을 뒤로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밤낮으로 시민불복종 텐트를 지켜왔던 것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다.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고 죽어가는 산황산, 고양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헌신, 더 나아가 무분별하게 훼손해 왔던 성장 개발 중심의 삶에 대한 자성적 성찰과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때문이었다. 이재준 전시장은 그런 시민들의 열망과 꿈을 강제 철거했다. 가슴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는 시장에게 시민들은 시정을 맡길 수가 없었다. 결국 사필귀정이다.

오늘은 새로운 민선 8기 고양 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고양 시민들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고양시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하는 생태중심의 녹색도시로 열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작금의 산황산을 둘러싼 골프장 증설 추진은 녹지 훼손 뿐 아니라 고양시 전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신임시장에게 제안한다.

고양시 산황산 주변의 자연 녹지 보존과 골프장 증설을 재검토할 <녹지 공익성 결정 시민숙의단> 추진을 제안한다. 이를 구성해 산황산을 주변으로한 녹지 개발의 필요성, 공익성, 사회적 비용 효율성 등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단 하나의 공익성을 가지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산황산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지역은 고양시의 중심부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양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이 있다. 정수장 주변의 안전성은 시민건강권과 직결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와 더불어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생태적 자연숲으로 보전되길 원한다. 600년 전통의 산황산의 느티나무가 보존되고 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고양시의 중심부가 보다 더 친환경적인 생태적 공간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한다.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 언제든지 시민불복종 텐트는 철거될 수 있다. 그러나 텐트가 치워진다고 시민들의 열망, 시대적 소명까지 철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제 2의 제3의 시민불복종 텐트가 세워지지 않도록 산황산을 골프장 증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열린 소통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고양시정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더불어 신임고양시장이 고양시 녹지 훼손을 막고 도심 자연숲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인권과 환경민주주의의 회복에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

2022년 7월 1일

고양환경운동연합,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범시민대책위,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기독교대책위, 고양생협협의회, 고양생협협의회, 고양작가회의, 고양YMCA, 고양YWCA, 고양여성민우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회네트워크, 대한성공회정희평화사제단, 대한성공회생명기후연대, 예수살기,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생명문화위원회, 도심녹지보전을원하는고양시민들

[사무실이전 인사말] 마두동 시대를 열며

지난 11월 9일, 저희 단체는 오래 몸담았던 주교동을 떠나 마두동으로 왔습니다.

관청과 사무실만 있던 곳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주택가로 옮긴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들르셔도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주요 지향으로 삼으려는지 이미 눈치 채셨지요?

고양환경운동연합은 90년대 말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후로 21세기의 전반 20년간 고양시의 크고 작은 환경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동력이 불충분할 때도 있었고, 저희의 활동 철학이 동의를 얻지 못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며 끌어주신 회원들, 지역 리더들과 동료 시민 활동가들의 격려에 힘입어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의 주요 축은 고양시 환경정책 대응, 환경 피해 시민 협력,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기입니다. 마두동 시대에도 이 지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8년이란 긴 시간동안 투쟁해왔던 산황산 지키기를 비롯해서 도심녹지축 확보, 보호수와 가로수 보호, 고양시녹지훼손 감시 등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시민단체의 요체가 시민이고 시민의 공익이므로 앞으로 마두동 시대에는 시민들과 협력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단체의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새로운 환경정보와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 강좌, 학생 교육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주민자치회 학교, 교회 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생태도서관, 작은 카페, 체험 공간 등으로 사무실을 자주 개방할 생각입니다.

고양시 환경단체들이 20여 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다른 단체들이 잘 하고 계시는 일들에서 배우고 연대하면서, 고양시 환경단체의 말이라는 책임감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들이 행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형제애와 지도편달을 앞으로도 지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1.9

[CBS 뉴스] “나무는 존엄하다”던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계획 고수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메일보내기2022-01-03 18:25

산황산 골프장 증설 허가 취소 요구하는 시민 천막농성에 '철수' 계고장 보내
고양시 시민, 목회자 등 산황산 평화기도회 개최
"나무권리선언 공표한 고양시, 산황산 나무 지켜야"
고양시 나무권리선언 "나무는 경제논리로 저울질 할 수 없는 생명의 존엄 갖는다"
산황산 600년 넘은 느티나무 등 골프장 개발 논리에 존엄 위협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숲 지켜야"

[앵커]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고양시 시민들과 목회자들이 지역의 산을 지키기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산을 관할하는 고양시는 2년 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나무권리선언을 공표했는데요. 8만 평에 이르는 지역의 산을 허물고 골프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면서 수년째 주민들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앞에서 오늘(3일) 산황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산황산 평화기도회'가 열렸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자리한 산황산은 고양시가 인근 골프장 증설을 허가하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8년째 허가취소를 위해 시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시의회 앞에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천막을 치고 시장 직권으로 증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천막 농성 3년 간 시는 시민과의 대화 대신 천막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만 보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기도회가 열린 이입니다.

산황산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는 고양시 교회와 목회자 등 기독교계는 산황산 평화기도회를 열고 자연에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정복되고 파괴되면서 숲이 사라지고 땅과 바다와 공기와 온갖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고통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기도회에 참석한 김경환 목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악한 존재는 자연이라면서, 성장과 개발을 멈추고 생태 숲을 지켜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경환 목사 / 동녘교회]

"도심 한 가운데 골프장이 아니라, 정수장 바로 옆에 골프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거닐 수 있는 생태 숲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고양시장은 스스로 제정해 공표한 나무권리선언에 따라 산황산 나무들의 권리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 2019년 3월 28일 '고양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무의 권리일지라도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나무권리 선언 1조에서는 나무는 경제논리로 저울질 할 수 없는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황산에 자리한 600년 넘는 느티나무.

산황산 자락에 자리한 600년 넘는 느티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나무들이 골프장 개발이라는 경제논리 앞에 존엄을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산황산의 숲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정 의장 / 고양환경운동연합]

"산황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을 농업경관지역으로서도 살려나가는 그것만이 고양시를 기후위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내호 편집 이남이]

[한겨레21] 골프장 때문에? ‘우영우 팽나무’ 닮은 용뿔나무

2021년 보호수 1만3859그루, 천연기념물 나무는 176그루



2022년 8월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산황산에 690년 전 무학대사가 심었다는 ‘용뿔’ 느티나무가 서 있다. 둘레가 11m에 달하고 남북으로 30m에 걸쳐 가지가 뻗어 있는 독특한 수형의 거목이다. 김진수 선임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500살 된 팽나무 한 그루가 도로 개발로 절단 날 위기에 처한 소덕동을 구한다. ‘우영우 팽나무’와 같이 나이 많고 큰 노거수(老巨樹)가 전국에 많다. 2021년 말 기준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수’는 1만3859그루,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받는 ‘천연기념물’은 176그루다. ‘우영우 팽나무’의 실제 모델인 경남 창원 동부마을 팽나무도 2015년 7월 보호수로 지정됐고,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2022년 8월24일 문화재청 심의 예정).

수백 년 전부터 함께 살았고, 이겨낸 세월만큼 크게 굽어져 영험한 나무(신목·神木), 소원 비는 나무(당산목·堂山木) 등으로 받들려온 이 ‘나무 어른’들은 현실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으며 잘 살고 있을까.

넘어온 굽은 가지 잘라도 제재 없어

2022년 8월5일 경의중앙선 곡산역에서 북동쪽으로 걸어서 20분 거리, 경기도 고양시 산황산에 둘러싸인 경기도 보호수 1호 ‘용뿔나무’(느티나무, 1982년 10월 보호수 지정)를 찾았다.

줄기를 곧게 위로 치켜세운 다음 가지와 잎을 옆으로 내는 여느 느티나무와 달리, 용뿔나무는 옆으로 퍼져 성인 가슴 높이 정도의 둘레가 11m에 달했다. 키는 11m로 690년 된 나무치고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남북으로 뻗은 굽은 줄기에서 30여m에 걸쳐 가지와 잎이 넓게 뻗어 있었다. 가지와 잎 아래 만들어진 거대한 타원형 수관(樹冠)이 주변을 압도했다.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은 머리에 쓰는 ‘갓’을 닮았다고 해서 ‘수관’ 혹은 ‘나무갓’이라고 한다. ‘용의 뿔’로 부르는 이 나무는 이름답게 높이 솟았다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아래로 굽이치는 가지 하나하나 그냥 뻗은 게 없었다.

용뿔나무와 1m가량 떨어진 곳에 불에 타다 남은 듯한 굽은 가지가 하나 보였다. “2019년 11월 강풍에 400년 정도 된 굽은 나뭇가지가 하나 부러져 고양시가 보호수 옆에 뒀는데 그걸 누군가 불태워버렸네요.” 동행한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름만 보호수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요. 강풍에 위로 치솟은 용뿔의 끝에 해당하는 100살가량 된 나뭇가지도 부러졌어요. 고양시는 강풍 탓만 하는데, 저희 생각은 달라요.” 20여 년 전 용뿔나무 바로 옆에 포장된 찾길이 뚫리고 2011년 산황산에 골프장이 지어지면서 나무의 잎이 줄어드는 등 생육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의 판단이다. 용뿔나무의 수관 아래, 즉 뿌리 위 토양의 절반 가량은 시멘트로 포장됐다.

산림보호법(제13조 3항)은 “누구든지 보호수를 훼손해선 안 된다” “보호수의 수관폭 내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등 보호수를 위한 ‘행위 제한’을 규정하지만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한 달 전 용뿔나무가 있는 땅의 소유주는 ‘가지가 늘어져 자동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약 100년 된 굽은 가지를 잘랐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조정 공동의장은 “2016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 걸쳐 고양시 담당자에게 용뿔나무의 천연기념

물 신청을 건의했지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현재 9홀인 골프장을 18홀로 넓히는 개발계획이 예정됐는데, 그렇게 되면 용불나무 30m 앞까지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골프장은 지하수 사용이 많아서 용불나무와 물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우영우 팽나무’처럼 고양시가 개발 때문에 천연기념물 신청 건의를 무시한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담당자는 “가지치기한 사실을 알고 난 뒤 나무병원을 통해 잘린 부위에 방수 처리를 했다. 이런 문제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현재 땅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신청 건의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 검토된 게 없다”고 밝혔다.

왜 보호수 신규 지정이 많지 않을까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용불나무는 매년 11월 마을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문화자산이다. 산향산은 부족한 도심 지역의 녹지지대라는 측면에서 재평가돼야 한다. 여기에 골프장 개발을 한다는 건 생물다양성을 깎아먹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특히 용불나무는 모양새 등으로 볼 때 독특한 가치가 있다. 국가 문화재 내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불나무처럼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는 전국에 8144그루(2021년 말 기준)다. 전국 보호수의 절반 이상(58.8%)이다. 도심 지역에 있는 보호수는 집과 도로 사이에서 동치 부분 땅만 간신히 움켜잡다가 고사 직전 상태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2000년 12월 지정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보호수(150살)는 주택가 담장과 이면도로 사이에 딱 붙어 살다가 2018년 8월 말라 죽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유지 보호수는 울타리와 간판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며 “최근에 보호수 신규 지정이 안 되는 것도, 지정 시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땅 주인이나 주변 주민들이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해 보호수 지정을 반기지 않고 되레 옮겨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수 보호를 위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 9월 서울 신반포15차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살 된 보호수 때문에 ‘지하 공간 사용이 어려워 사익이 침해된다’며 보호수 이전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했다. 조합 측은 대형 로펌(법무법인 태평양)을 동원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간 사용 제한은 이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관리 부실 등으로 고사한 보호수는 259그루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학과 교수는 “자연환경에 대한 몰이해가 상당수 보호수가 고사 직전에 내몰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나무 생육,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뿌리 생육에 무지 내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보호수·천연기념물 등의 관리를 책임지는 ‘나무의사’의 전문성도 논란이다. 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 6월부터 시행했는데, 지정 기관에서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4월 기준 733명이 합격했다. 나무의사 제도의 원형인 일본의 ‘수목의’ 제도는 수목 보호·치료 업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논문을 심사해 15일간 연수한 뒤에야 시험자격을 부

여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거수 관리를 위해 발주해보면 나무병원은 기술자 한 명을 겨우 보유한 영세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맨눈으로 보거나 고무망치 하나 들고 두드리면서 속이 썩었나 살피본다. 산림청 등에서 고가 장비를 대여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10그루 중 1그루 고사

지자체 예산으로 연 1회 점검받는 보호수에 건줘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연 6회 점검받는 천연기념물도 죽고 나서야 사인을 아는 일이 많다. 균형 잡힌 반구형 수관으로 유명했던 ‘충북 보은 백송’도 2004년 여름 갑자기 고사했다. 조사해보니 1983년 마을 주민들이 쌓은 1m 높이의 축대가 원인이었다. 축대 아래 뿌리는 물론이고 땅속에 묻힌 나무 밑동까지 검게 썩어 있었다.

사실 많은 노거수가 원인도 제대로 모른 채 신음하고 있다. 원로 수목생리학자인 이경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가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낸 <한국의 천연기념물: 노거수 편>을 보면 천연기념물 144그루 가운데 생육 상태 ‘나쁨’은 25그루(17.4%), ‘매우 나쁨’도 7그루(4.9%)에 달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정이 해제된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62그루다. 2000년 이후에만 18그루가 고사했다. 지난 22년 동안 천연기념물 노거수 10그루 중 1그루가 고사한 셈이다.

이 가운데서도 ‘충북 보은 정이품송’은 운이 좋았다. 1982년 정이품송의 복토 문제를 처음 지적한 이경준 명예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수관이 균형 잡힌 우산 모양을 한 정이품송이 망가진 계기는 1973년 법주사에 진입하는 차길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흙과 모래·자갈로 나무 동치를 덮은 일이었다. 1988년 땅을 파보니 60cm 정도 복토됐는데 잔뿌리의 80%가량이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밑동은 썩어서 잘록해져 있었다. 복토 제거 공사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 1988년부터 6년간 이뤄졌다.

키가 점점 줄어드는 1100살 은행나무

이 명예교수는 “고목은 굵은 뿌리가 (흙 밖으로) 노출된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이다. 그렇게 웅장하게 뻗은 모습을 그대로 감상해야 하는데, 안쓰럽다고 흙을 덮어준다. 좋은 의도였지만 피해는 영구적이다. 흙을 걷어내도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정이품송은 남은 20%의 뿌리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00살 된 용문사 은행나무도 1919년 일본인이 쓴 <조선거수노수명목지>를 보면 높이가 62m라고 돼 있지만 1962년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42m였고, 2005년 측정해보니 39m로 줄어들었다. 30도 경사지에 자라던 이 나무는 옆 개울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며 자랐는데, 걸흙이 씻겨 내려가자 스님들이 보호한다고 석축을 쌓으면서 치명타를 입었다”며 “천연기념물인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창덕궁 향나무, 제주 표선면 성읍리 느티나무 등 많은 노거수가 복토 때문에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심각한 걸 공무원들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고양=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등록 : 2022-08-25 00:03 수정 : 2022-08-25 08:37

2022 주요활동

사계절 탐조



산황산 4계절 탐조

산황동 일대는 습지, 밭, 하천, 자연숲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수백 종 조류 관찰





지도 : 활동명 사이 (동물권활동가)
참가비 : 무---로
탐조 장소 : 곡산역-산황산



탐조교육
5. 21일(토) 오후2시
고양관광정보센터

신청 및 문의
031-921-7001
고양환경운동연합

탐조실사

- 봄 5. 28일(토) 오전 8시
- 여름 7. 23일(토) 야간탐조, 오후8시
- 가을 10. 8일(토) 오전 8시
- 겨울 12. 17일(토) 오전 8시

출발 장소는 공통으로 곡산역 입니다.



사전교육



여름(야간)



봄



겨울



가을



스프링힐스골프장 매월 지하수 모니터링



2022행주강변걷기

환경이야기
들으며

제4회 행주강변걷기

5월 14일 (토) 오전10시~오후 1시

- 모이는 곳 : 행주산성 역사공원 (행주산성로 93-38)
- 준비물 : 음료나 간식 개인준비
- 참가이벤트 : 코스마다 완주시 작은 선물 증정
- 걷기 코스 : 역사공원 -> 행주나루 -> 행주어촌계 -> 장항습지인근
- 길라잡이 : 안재성(고양시 향토문화진흥원 원장), 행주강변 역사와 환경이야기
- 문의처 : 031-921-7001(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



자. 구. 회. 정
고양환경운동연합



2022산황동용뿔느티나무 고천제

산황산 느티나무 고천제 축문

영원함의 끝을 알 수 없는 하늘님과 우리 존재의 시종을 보듬어주시는 명님께
제4회 산황동 느티나무 고천제를 고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오전 11시,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고천제를 마련하여
고양시 나무들의 할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2013년 3월에 느티나무 할아버지와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세상 생명과 역사에 경외감을 가졌고,
느티나무 할아버지는 맑은 말로 산황산을 지키라고 타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은 열 번 째 가을입니다.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고양시민들은 힘닿는 데까지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느티나무 할아버지는 우리를 응원해주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처지와 기원을 천지와 천지간 생명들께 고합니다.
생명의 터전을 부수고 부당하게 돈 버는 자들의 흉악을 이 마을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느티나무 할아버지 건강을 위한 부지와 뿌리 보호 시설을 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느티나무 할아버지의 생명력을 이은 후계목을 가려 육성토록 해주십시오.
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 일을 도와줄 고양시장과 지자체 의원들 마음에 생명의 지혜를 채워주
십시오.

자연의 풍부한 속에서 산황동 주민들과 고양시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한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가을을 기뻐합니다.
함께 나눌 소원을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고천제가 해마다 뜻을 더하고, 산황동의 느티나무 할아버지가 늘 푸르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명의 날

기후위기를 근심하는 지구의 벗님들과 함께 행동하는 고양환경운동연합



기독교대책위 목사님들과 함께한 산황산 보전을 위한 기도회



산황산을 살리기위한 기도회 및 문화제



[특강] 고양시도 꾸리찌바가 될 수 있을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도 꾸리찌바가 될 수 있을까?

특강 박용남소장에게 듣는 생태도시 이야기

강사 박용남
-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 꿈의 도시 꾸리찌바 저자

2022. 8. 17(수) 오후 2시
일산서구청 2층 여성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

신청 및 문의 | 031-921-7001 | 고양환경운동연합



[특강] 기후위기 특강(with 환경운동가 최병성목사)

고양환경운동연합 특강

기후위기와 우리의 삶

강사: 최병성 환경운동가

2022. 9. 23(금) 오후 7시
고양시 백석도서관(B1 대회의실)

신청 및 문의 | 031-921-7001 | 고양환경운동연합

9.24 기후정의행동 행진에도 많은 참여바랍니다.
9월24일(토) 오후3시 서울 광화문일대
고양환경운동연합 기발쪽으로 와 주세요!



924기후정의행진

9월 기후정의행진
 1기후정의행진 9.19(토) - 23(금)
 www.action4climatejustice.kr
 기후정의행진 9월 1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행진
이대로 살수없다

9.24
기후정의행진
 2022.9.24.(토) 오후3시
 서울 광화문 일대

QR 코드: 924 기후정의행진의 재정 마련을 위해 1만명의 "후진행진"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 참여하기 ▶ bit.ly/924추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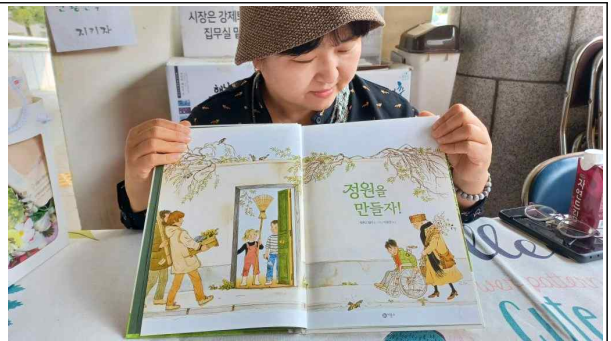
2022 환경그림책읽기

2022 환경그림책읽기

날 짜 5월~9월 (첫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토요일, 10시~11시30분)
 장 소 고양특례시청 의원회관 앞
 모집대상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모집인원 선착순 7명까지
 신청방법 문자접수(010-3278-0057)

주제	특수 활동	준비물
5/6(금) 마아는 텃밭이 좋아요	깨진 그릇에 반려식물심기	깨진컵, 그릇, 흙, 모종삽
5/21(토) 정원을 만들자	식물 화관 만들기	식물, 글루건, 리본
6/3(금) 숲으로 간 사람들	업 사이클링(까또나쿠)	못입는 옷, 상자, 가위 목공용품
6/18(토) 이젠 꿈일 뿐이야	안대-목발 써서 과자 따먹기	목발, 안대 끈, 과자
7/1(금) 잃어버린 것벌 새만금	손가락 그림	물감, 천
7/16(토) 즐겁기 요정	즐넵기 게임	즐넵기
8/5(금) 캠프 쿠스토	해저풍경 클라주	못입는 옷, 만들기재료
8/20(토) 아바는 환경운동가	팔랑경 비누 만들기	비누 베이스, 오일, 종이오일
9/1(목) 내 이름은 푸른점	감정 꼬리 만들기	모두 돼지그림
9/17(토) 이제 숲은 완벽해	산황산 생태체험	운동화, 모자

■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재료를 포함하여 무료로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 재료(깨진그릇, 헌옷 등)는 직접 준비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헌비 못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문의: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처(031-921-7001)



2022 총회준비위원회

위원 / 김경희, 김명수, 문성준, 문희영, 박남희.
윤영학, 이용임, 조정, 최은영



우리힘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녹색세상



지.구.외.벗 Friends Of the Earth Korea www.kfem.net

고양환경운동연합

(104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3 (3층)

TEL : 031) 921-7001 email : koyang@kfem.or.kr

| 생명 | 평화 | 생태 | 참여 |